

#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재심의 요청

### 지역 거주 요건 빠리는 대교협 권고 수용 어려워 지역 수험생 피해 최소화... 당초 전형취지 살려야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재심을 요청하고, 법제처에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교협의 권고에 따라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자격 기준을 완화한 바 있는 전북대가 당초대로 학부모 거주요건을 포함해 선발하겠다는 것.

전북대는 당초의 지역인재전형 자격요건이 지방대학육성에 위배되지 않고, 대학 자율화 정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전북대는 2019학년도까지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료 한정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학부모 거주 여부는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인재전형에 부모 또는 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는 당초 지역인재전형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고됐기 때문에 2019학년도에는 지원자격을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대교협에 수차례 재심 요청을 했고, 2019학년도에는 전북대의 계획대로 지역인재전형 자격요건이 적용돼 입시전형이 진행됐다.

그러나 2020학년도에는 대교협의 권고안대로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이 변경되면서 최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북대는 지난 4월 15일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부 또는 모와 학생의 전북지역 거주 요건'으로 변경하는 안을 대교협에 재심의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와 같은 변경 안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도 요청했다.

전북대가 거주 요건을 삽입해 설정한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설정됐고, 특히 해당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전북대의 '거주 요건'에 대한 불가 방침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전북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지방대 육성법 제4조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실질적 지역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독자적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합당하기 때문에 대교협에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전북대의 지역인재 전형이 지역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실질적 의미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교협이 우리대학만의 지역인재전형 요건을 재심의하고 긍정적 방향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

## "경제활동 직접 체감해요"

### 익산부승중, 도담 사회적협동조합 학교매점 개소식 가져

익산부승중학교(학교장 김종석)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경제활동 체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교내에 사회적협동조합 도담 학교매점을 설치하고 17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국재 도교육청 교육국장, 최규규 도의회교육위원장, 이수경 익산교육장, 익산시 관내 중학교장 그리고 최소연 도담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담 사회적협동조합은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인사 등 104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됐으며, 조합원의 자발성과 민주성, 자율성과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판매 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형 경제 교육, 장학사업, 반찬 지원사업 등으로 학생 복지와 학생의 바른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종석 익산부승중학교장은 "학교협동조합이 단순한 먹거리 위주의 활동을 넘어 학생들에게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는 비즈니스 사업과 연계해 학생 동아리에서 만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 학생들이 경제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산교육지원청, 청소년 동아리 운영교사 연수 개최

군산교육지원청은 15일과 16일 양일간 군산 관내 초·중·고등 교원 약 90명이 모인 가운데 군산혁신교육특구 청소년꿈을 동아리 운영교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청소년꿈을 동아리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담당교사들에게 군산혁신교육특구에 대한 안내 및 청소년꿈을 동아리의 취지 등을 안내하고 연간 동아리 운영 및 운영비 집행 관련 및 질의 응답의 형태로 진행됐다.

청소년꿈을 동아리는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AHA 군산 2019 군산혁신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습 중심의 학교 생활에 다양성을 부여하며 자발적인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학생 주도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청소년 자율문화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과 외 다양한 주제를 정하여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구성하여 1년간 활동하며 12월에는 운영결과 발표마당도 예정되어 있다. 지난 3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고 그 결과 당초 목표한 동아리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신청하여 군산 관내 교사 및 학생의 군산혁신교육특구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광순 교육장은 "앞으로도 군산혁신교육특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7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61회 춘계전국중고검도대회에서 익산중 검도부가 중등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 피, 땀, 눈물로 정상 '재탈환'

### 익산중 검도부, 춘계전국중고검도대회 단체전 우승 쾌거

'검도 명문' 익산중학교(교장 이종성) 검도부가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17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61회 춘계전국중고검도대회에서 익산중 검도부가 중등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단체전에 나선 익산중(박종수·양진회·정승환·장래혁·이재현·임채훈)은 문화중과 조치원중, 서석중, 주성중 등과 매경기 팽팽한 승부를 벌여 승리한 뒤 결승전에 진출했다.

경기 퇴계원중을 결승전에서 만나 포인트승(동물일 때 득·실점으로 판단)으로 정상을 차지했다.

10년 전 이 대회 우승팀인 익산중 검도부는 이번 승리로 정상자리를 재탈환했다. 익산중 관계자는 "전북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다음달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1회 춘계전국중고검도대회는 당초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형 산불이 발생해 개최지가 전주로 변경돼 치러졌다.

/장은성 기자

## 학교폭력 분쟁·조정 적극 개입

### 전북교육청, 화해분쟁조정 지원단 구성·운영... 현장 직접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분쟁 및 화해조정에 적극 개입한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시 화해조정과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소리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전문적·중립적 개입을 통한 학교현장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피·가해학생 간 불복 기관이 달라 2차 분쟁이나 갈등으로 증폭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대학 강사·학부모 등 분야별 전문가 23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관련 연수 및 조정실습을 실시했다.

앞으로 지원단은 분쟁 당사자의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 지원, 법적

소송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합의조정 지원, 학교별·유형별·대상자별 맞춤형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분쟁 당사자인 보호자나 학교가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안내자와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해 사안 평가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면 조정이 개시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이거나 개최중인 사안이라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지원단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조정기간은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8주 이내로 하며 당사자 모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관리위원회 협의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기별 1차례씩 연수를 진행하고, 매월 협의회를 통해 원활한 소통과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오늘 양현고에서 학교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오늘 오후 양현고 시청각실에서 초·중·고등학교 희망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설명회

를 마련했다.

이 날 설명회는 김현철 익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양현고 협동조합 'YHAM(얌)' 운영 사례 나눔과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계획 등 정책설명이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